



1993년 작품 '아들, 아들, 아들'



이  
여  
자  
의  
에  
술  
후

조선일보사가  
이중섭 화백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이중섭 미술상'  
제8회 수상자로  
결정된 윤석남 씨는  
4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했고 오랫동안  
여성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올해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

# 윤석남

글·노옥진  
사진·정복남기자

“저는 상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기쁘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특히 이중섭 미술상이 이렇게 위력 있는 상인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40년 만에 새벽에 전화를 해왔더군요. '너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서 울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도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저 자신은 무덤덤했는데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윤석남 씨(57)의 소감이다. 그녀는 불혹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8년 만에 일가를 이뤘다. 짧은 단발머리에 헐렁한 작업복을 걸친 윤씨는 나이보다 최소한 열 살은 젊어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금호아파트 지하에 있는 윤씨의 40여평 작업실에는 나무토막과 톱, 드릴, 화구 등이 가득 차 있고 입구 쪽으로는 책장과 그의 기성 작품이 몇 점 무심하게 전시되어 있다.

윤씨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인터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잡지, 저 잡지에 얼굴 내미는 사람을 보면 좋아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네요.

정말 괜찮을까요?”라며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윤씨의 때문지 않은 내면을 보는 것 같았다.

윤석남 씨는 지난 2, 3년 전부터 활동이 눈에 띄게 왕성해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95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특별전 '호랑이의 고리' 전을 비롯해 호주와 동경, 그리고 뉴욕에서 열린 대규모 외국 전시회에도 초대되었다.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그의 작품을 본 외국 큐레이터들이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다.

“왜 제 작품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풍수지리는 안 믿지만 이곳 작업실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6년 전 이곳으로 온 다음부터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녀의 작품은 '한국적이면서 여성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그린 '어머니 시리즈'는 유명하다. 93년 이후 어머니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이 시대 여성의 상황과 삶을 표현하고 있어 '여성문제에 천착한 작가'라고 불린다.

윤씨는 80년대에는 평면 작업을 했다. 형식은 아크릴, 드로잉 등 다양하게 시도해봤지만 주제는 일



관되게 '어머니'였다. 그녀의 작품은 형식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내용적 설득력이 강하다고 한 평론가는 말했다.

"어머니를 그리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청교도적인 정직함과 지혜로움이 좋아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제가 작가로 다시 태어나는 데도 근원적인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수원에 살고 있던 윤씨의 어머니는 딸의 작업을 위해 일 주일에 두세 번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와 모델이 되어줬다. 이들 모녀는 작업 핑계로 마주 앉아 일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안 해본 장사가 없을 만큼 고생하면서 저희 6남매를 잘 키워주신 어머니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갈구를 작품에 담고 싶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사랑과 인내, 그리고 힘을 포괄적으로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윤씨는 82년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 후 두 번째 개인전을 갖기까지는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요구되었다. 첫 전시회 이후 부족함을 느낀 윤씨는 83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플랫 그래픽 센터에서 10개월간 관화, 유희, 드로잉 등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를 느꼈고 남편도 그리

## 마흔에 그림 시작한 화가의 길, 남편과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기를 바랐는지 적극 권유하더군요. 그때 미술 테크닉뿐 아니라 현대미술에 관해 많이 배우고 생각도 깊이 했습니다. 그 10개월은 제 작업의 기둥을 마련해준 셈이지요."

귀국한 윤씨는 86년 민족미술협회의 회에 가입하고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을 만나 여성주의, 여성문학, 여성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88년에는 '우리 붓물을 트자'라는 제목으로 '여성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전'을 갖기도 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듯하더니 윤씨는 돌연 또 이 땅을 떠났다. 89년 여름은 그녀에게 끔찍한 해였다. 작업에 대한 회의가 오고 의문이 많아진 시기였다. 이때 그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딸과 함께 지내며 2년 여간 방황기를 거쳤다.

"제 작업의 방향 때문에 학교에 적은 두지 않고 혼자 그림 그리며 전시회를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저의 권태를 극복하고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지요. 평면화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끔찍하고 지루했던 방황기였습니다."

### 한동안 '어머니'를 고집스럽게 그렸다

90년 다시 돌아온 윤씨는 그 때까지 작업했던 평면화에서 입체 미술로 돌아섰다. 그녀는 어느 날 골동품상을 하는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사면 앞에 놓는 조각, 상여를 장식한 인물상 등을 보았는데 그때 작업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고 한다.

"전통의 것에서 나무 위에 채색하는 방법만 빌려왔습니다. 우선 제재소에서 쓰다 남은 둥근 나무 조각을 얻어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어떤 것은 기계로 깎아내기도 했는데 평면화에 비해 훨씬 재미있게 느껴지더군요. 손으로 톱질거리며 하는 작업이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서서히 슬럼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93년 어느 날 아는 화가 한 분이 제 작업실에 놀러왔다가 나무에 그린 어머니 작품을 보

더니 '윤석남 씨 이번 작품은 히트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화가의 말대로 그녀의 2회 개인전은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나무에 그린 어머니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관람객도 있었을 정도다. 2회 개인전을 끝낸 후 그녀는 '어머니 시리즈'의 막을 내린다. 과거에서 현재로, 전통에서 현대로 다가올 준비를 했다.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라는 주제를 붙들고 있어 탈진했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걸음으로 보여지는 나와 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얘기는 단순히 저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과 생각에 관한 것이죠. 어머니를 주제로 할 때는 전통적인 색채가 강했지만 이제는 현대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여성 작가의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남 씨는 영화 감독이자 대중 역사소설가로 알려진 고 윤백남 씨의 셋째딸. 윤씨는 부친의 타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전력 조사부에 입사해 4년간 사회 생활을 했다. 그 후 성균관대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치기 어린 생각으로 2년 만에 중퇴한다.

"그 때는 어려서 그랬겠지요. 대학에 들어가보니 이곳에서 뭘 배우겠나 싶고 등록금이 아깝더군요. 그래서 중퇴했는데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윤씨는 다시 취직을 했다가 결혼하면서 전업 주부로만 살았다. 그러나 결혼 후 7, 8년 지나자 서서히 그녀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했다. 그때부터 시인 박두진 씨에게 붓글씨를 배웠다.

"그러나 붓글씨를 4년쯤 배웠는데도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더군요."

윤씨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성격이라고 자신을 진단했다. 그녀는 가정 주부로만 만족할 수 없었고 가슴에 끓어오르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길 없어 무작정 이종무 화백을 찾아갔다. 그녀가

처음 데생한 것을 보고 이 화백은 깜짝 놀라더라고 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더라. 물론 배운 적은 없었다. 그녀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예술혼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길은 예정되어 있었다.

윤씨는 이홍배 씨(59)와 결혼해 딸만 하나 두었다. 결혼 후 8년 만에 낳은 딸 지선(21)은 현재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상업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지선 씨는 어릴 때 '엄마를 그림에 빼앗겨버려' 미술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한다.

윤씨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착한' 남편의 도움이 컸다. 작업실을 얻는 데도, 공부를 하는 데도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홍배 씨는 그녀가 작업실에서 아무리 늦게 귀가해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다. 이번에 상금으로 1천만 원을 타게 되자 "그 돈은 합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보아준 주위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고 못박더라. 그녀는 "부모와 남편을 잘 만난 것 같다."고 했다.

윤씨는 마지막으로 작업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평면 작업에 한계를 느껴 입체 미술, 설치 미술로 돌아섰는데 작업을 하다보니 이 작업이 평면보다 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평면에서는 점 하나를 찍어놓고 우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데 설치 미술은 작품이 놓여 있는 그 공간만큼만 인식되거든요. 언제일지는 몰라도 제 작업에 또 한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